“법화종 정상화 위해 전 종도 동참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13대 종정 도선 스님



대한불교법화종이 혼란스럽다. 지난해 1월 전 총무원장 스님의 법정 구속 이후 총무원장 서리가 두 번 교체되는 등 종단의 중심인 총무원이 좀처럼 정상화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 우여곡절 끝에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0대 총무원장에 거암 스님이 선출됐지만, 전과와 이중승적, 제적으로 인한 자격논란이 직무집행정지 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월 19일 법화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도선 스님〈사진 오른쪽〉은 최근 종정교시를 발표하고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임명을 판결 시까지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식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후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종단 안팎의 혼란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회 선거를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종헌 제37조).

도선 스님은 종단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종도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법화종이 정상화는 물론이고, 재도약을 통해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스님은 “해법은 늘 있지만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사리사욕이 끼다보니 종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된 것 같다”며 “지난 세월 종단 일을 어둡게 이끌어 온 일부 인사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법화종이 온전하고 바르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종도들이 애종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종단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화종으로 전종할 당시의 종단 위상도 되새겼다. 도선 스님에 따르면 법화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창립 종단이자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창종한 종단이다. 도선 스님 입종 당시 법화종은 전성기였다. 종정과 원로 · 대덕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총무원청사 건립을 발원하고 탁발과 십시일반 후원금 모연 등으로 서울 성북구에 청사 건물을 짓고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

스님은 “당시에는 각 지역의 유능한 스님들이 학식을 교류하며 제자 양성에 주력했고, 2500여 사암의 힘이 모인 종단 차원에서 경승 군종 활동 등의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에 힘을 썼다”며 “그랬기에 나 역시 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기꺼이 법화종도가 됐다. 다수의 변화보다 홀로이 수행하고 부처님을 모시기를 원했기에 더없이 좋은 종단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는 현재 직면한 종단 현실이 더욱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종단협 소속 30개 종단 중 의전순위 29위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의전 순서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불교 발전에 앞장섰던 우리 종단의 위상이 그리 추락되었다니 안타깝다”며 “부질없는 영화 속에 빠져 쇠락하는 줄도 모르고 도태되어 온 현 세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한탄했다.

스님은 “원로의원으로 종단 소식을 접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우리 종단의 쇄락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재를 주도한 임원, 그들을 도와 기생하려는 소수, 외부에서 등장한 이권 세력들에 의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수가 이에 속고 무관심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선대 조사와 종정, 원로 · 대덕 스님들이 일궈놓은 전통 종단을 오늘날 후학들이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종권 다툼의 끝없는 모습들로 인해 종도와 불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도선 스님이 종정에 추대된 후 각고의 고민 끝에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 같은 안타까움의 발로인 셈이다.

스님은 종단 정상화 기치로 ‘원융화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종헌 · 종법과 종지 · 종통을 바로 세우고 종단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곧 종단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란 신념이다.

“화합은 모두의 참회로 시작하고 바로잡힌 질서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는 것은 화합이 아닙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개선은 개선대로 이뤄져야 하며, 모두가 사심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초월하는 부처의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말로 하는 화합이 아닌 질서와 책임으로 이어지는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모두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부패와 쇠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종단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 바랍니다.”

도선 스님은

1968년 영천 은해사에서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으며, 1974년 합천 해인사에서 비구계 수지, 1977년 조계종 영덕 관음사 주지와 1981년 경주 불국사 감찰국장 소임을 역임했다. 이후 법화종에 입종해 1996년부터 법화종 의성 수도암 주지를 맡고 있다. 2008년 종사 법계를 취득하고 2015년 원로의원으로 위촉됐으며, 올 1월 19일 법화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종 정 교 시

선대 조사와 종정, 원로 · 대덕 스님들의 공덕으로 한국 불교계의 한 축이었던 우리 대한불교법화종이 오늘날은 부패와 혼란으로 쇠락해져 있습니다. 부패와 혼란에 지치고 실망한 종도들과 사암들이 떠나고 나니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종단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하교하는 바입니다.

총무원장 당선인 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관례를 들어 행하지 말고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볼 것이며, 대내외 종헌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합니다. 종단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애종심을 갖고 헤아려보십시오. 사문으로서의 자존에 부끄럽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본분을 잊지 말 것이며 총무원의 최소 행정을 감시하여 공백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전국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중앙행정의 공백을 참작하여 보다 치밀한 교구행정으로 종도들의 불편을 줄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종단에 대해 종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뜻을 낼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원로 대덕스님들께서는 종도들의 눈을 밝혀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고 종단이 파화합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음에 대한 인지를 주지시켜주십시오.

법화일승의 가치를 잊지 않고 과거의 영화를 찾아 깨끗한 종단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온 종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온 종도들의 발심에서 시작될지니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말고 뜻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65년 2월 9일

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도 선

법화종 관련 법령

종헌(宗憲)

제4장 종정

제16조 종정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하고 재추대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 종정은 총무원장 포교원장을 종회의 선거를 경하여 임명하고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승니에게 법계 및 상을 수여한다.

제7장 총무원

제37조 총무원장은 종회의 선거를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제17장 상벌 포상

제90조 징계는 다음 방법으로 행한다.

징계적용

1. 치탈도첩, 제적 및 종권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치탈도첩 또는 제적, 종권박탈 처분의 징계에 처한다.

나. 종정 교시를 위배한 자.

바. 본종 승적을 취득하고 타 종단의 승적을 가진 자.

종법(宗法)

총무원법(總務院法)

제1장 총칙

제2조 본원의 임원의 자격은 종무직원법에 의한다.

종무직원법(종무직원법)

제1장 자격요건

제5조 ① 하(下)의 각(各) 호(號)의 1의 해당하는 자는 종무직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국법에 의하여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 종단 공무상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기 사항을 면책받는다.

다. 종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

② 종무직원의 재임 중 전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는 당연 해임된다.